

제 자리 굳혀가는 우리출판의 새 영역들

환경 여성학 광고 생활정보 부문 출판열기 점차 확산 추세

요즘 서점의 진열대를 둘러보면 전과 달리 무척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선 보이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사회가 분화돼 수만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현대인들의 관심사도 가지가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출판계의 도서 목록도 독자들의 변화에 맞춰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늘어나는 출판사들의 기획에 의해 최근 출판장르가 '세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게 출판계의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7천개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출판계는 기획력 부재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몇년간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인에 의해 새로운 출판장르로 터전을 확보하기 시작한 분야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출판량을 기록하며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것이 '환경' '여성학' '광고' '생활정보' 분야다. 생활폐수·쓰레기·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현실로 드러나고, 대구 폐놀유출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출판열기가 가열되고 있는 환경분야 책들은 열기에 비해 다채로운 형식으로 출판되고 있다.

만화·수필집 등 형식도 다양해

먼저 전문성을 띤 학술서로는 「환경화학물질과 연안생태계」(吉田多摩夫 엮음, 오윤근 외 옮김, 교보)와 우리의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구자건 외 따님) 그리고 가루베 이사오의 저서 「지구환경과 바이오테크놀로지」(조성호 옮김, 전파과학사) 등 20여권에 이른다. 또 'World watch Institute 조사연감'인 「지구환경보고서」(따님)도 출판돼 있으며, 소설가 김성동씨가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기행문을 묶은 「생명에세이」(폴빛)라는 이색출판물도 눈에 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람과 자연을 따로 보는 서구의 이원론 철학 탓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우리 민족의 일원론 철학으로 돌아가자"고.

환경기행물과 함께 이색출판물로 보이는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메시지」(이영주 외 옮김, 명상)는 명사가 오소 라즈니쉬의 환경론이며, 공해추방 만화 「하나뿐인 지구」(신영식, 푸른산)도 출판돼 있다. 환경문제 관련 출판물의 최근 추세는 외국의 환경학 이론서



최근 서점가에는 환경학·여성학 등 새 출판장르의 책들이 속속 진열되고 있다.

나 실태보고서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저작물이 늘고 있는 점이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현상항 점검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김명자, 동아출판사)을 비롯해 녹색 유파들의 내용을 다루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생태문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확장을 꾀한 문순홍씨의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나라사랑) 등 점점 그 수를 늘리고 있다. 개인연구의 성과물과 함께 연구회 등 단체가 펴낸 출판물도 여럿 된다.

환경공해연구회가 우리나라 공해의 실태와 대표적인 공해사례 등을 정리한 책 「공해문제와 공해대책」(한길사)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가톨릭정의평화연구소가 엮은 「알기쉬운 공해추방 상식」(성바오로출판사)은 공해와 관련된 용어와 환경운동 관련단체 소개, 그리고 주요 환경운동일지, 환경관련도서목록을 주내용으로 한 책으로 제목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YMCA 환경교육정보센터가 「지구환경회의의 자료집」으로 출판한 「지구환경회의」는,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 '지구헌장' '리우데자네이로회의' 등 환경관련 국제조약 및 회의자료를 한데 모은 것.

이밖에도 「지구를 구하는 1,001가지 방법」(베네데트 벨리리 지음, 박진희 옮김, 수문) 등과 같이 일상사를 통해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책도 다수 출판돼 있다.

환경문제와 같이 사회적 관심의 고조에 힘입어 출판물을 이루고 있는 분야가 여성학. 해외이론 소개 정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

성학계의 축적된 힘과 여성의 사회진출, 그리고 성폭행 등 성차별 문화거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최근 여성학 혹은 여성문제를 다룬 이론서와 대중용 입문서, 소설, 실태보고서, 전문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 분야에서도 국내 저자들의 저서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는데, 「결혼에세이」(박수선, 민맥) 「암탉이 울면」(최순덕, 동녘) 「여자도 이제...」(박은희, 새날) 「여성 이야기주머니」(유시춘외, 녹두) 「한국의 여성과 남성」(조혜정, 문학과지성사)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남인숙, 서울신문사) 등 한국적 여성문제를 다룬 입문서들이 나와 있다. 이와함께 신화 속에 나타난 여신들의 특징을 여성의 보편적 성격에 빚댄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진 시노다 불린 지음, 조주현 외 옮김, 또하나의문화)과 미국여성협회 위원 델 마틴이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본격 연구분석한 「매맞는 여자들」(정세웅, 한국문연)이 최근 번역 출판돼 관심을 더한다.

사회적 관심 모은 분야가 활발

여성학 관련 출판의 가속화에도 여성단체와 연구회 등의 역할이 크다.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여성연구회'는 이미 「여성학 강의」(동녘) 「한국여성사」(폴빛)를 펴냈고, 무크 「여성과 사회」도 간행하고 있다. 여성학 관련서만을 내고 있는 출판사 「또 하나의 문화」는 단행본과 잡지출판을 병행하고 있는데, 무크지 「또 하나의 문화」는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7호)에 이어 「새로 쓰는 성 이야기」(8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9호)까지 나와 있다. 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

성을 다방면에서 다룬 이런 책들의 급격한 신장세는 당분간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소비자가 텔레비전을 매개로 만나는 TV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인 「광고」의 핵심에 해당된다. 컬러TV의 등장 이후 급성장한 광고계의 규모확대와 일반인들의 관심고조는 광고도서 출판의 증가를 가져왔고, 광고학 입문서 일변도의 도식적 내용에서 탈피해 다양한 광고관련서들이 잇따라 출판되고 있다.

광고의 제작과정에서 빚어지는 에피소드를 엮은 책들 「잠시 전하는 말씀」 「따라하지 마!」 「만리장성 씹어먹기」 등은 읽는 재미 때문에 광고분야 책들의 인기를 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경우다. 광고제작 뒷얘기나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먹고 삽니다」(심지) 등 광고계 종사자들의 애환을 담은 책, 그리고 프랑스 광고회사 RSCG의 사장이 쓴 「광고에 신들린 사나이」(세계일보) 같은 세계적 광고인의 성공담이 일반인과 광고계 초년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광고를 추린 「내가 좋아하는 광고」(소담) 등 새로운 기획물이 선 보이고 있다.

환경·여성학·광고분야와 함께 독자와 출판사에 의해 차츰 개발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생활정보」 관련도서. 정보가 곧 돈이고 생명이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일상도 정보없는 꾸러가기 힘들어지면서 안내서의 또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생활정보 가이드북.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오너 드라이버 증가에 따른 자가용 여행안내서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드라이브」(최동욱, 정우사) 「서울근교 당일코스」(표성흠, 동화출판사) 「베스트 드라이브코스 101선」(김순경, 강천) 「내차 타고 하루여행」(차림) 「주말 드라이브」(이수용, 수문) 등의 이런 책들은, 가볼만한 곳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설명에 운전에 필수적인 약도 등 불필요이 다녀올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생활정보 안내서로 역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서울시내와 근교의 음식점 등 여가와 외식 문화에 필요한 책들. 대학가와 서울시내를 지역별로 나눠 적당한 약속장소의 연락처 업체 등을 소개한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두성) 레저 스포츠시설 문화예술공간 등이 실린 「정보방망이」(길벗) 등이 이에 속한다.

— 최태원 기자